

절망의 시대 ... 맹자를 찾아 사람의 길을 묻다

맹자여행기

신정근 지음

맹자를 모르는 이는 없다. 그렇지만 '맹자'를 제대로 읽었거나 그의 사상을 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는 더 더욱 없다. '맹자'하면 우선 연상되는 것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라는 말이다. 홀로 자식을 키우던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맹자가 글 공부를 하다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자 맹모가 베를 베를 잘랐다는 '단기교자'(斷機教子) 고사 역시 유시하다. 이처럼 자식교육에 헌신했던 맹모도 노년에는 "너는 내 뜻대로 살고 나는 내 예(禮)대로 살겠다"며 맹자를 놓아주었다.

신정근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가 최근 펴낸 '맹자여행기'는 사상가 맹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 쑤우청(鄒城) 일대를 찾아가는 인문기행문이다. '절망의 시대, 사람의 길을 묻다'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에서 저자는 쑤우청에 산재한 네 가지 맹자 관련 유적지를 꼼꼼하게 돌아본다. '사맹'(四孟)이라 불리는 이곳은 '맹묘'(孟廟·맹자를 모시는 사당), '맹부'(孟府·맹자 후손들이 생활하는 공간), '맹모림'(孟母林·맹모와 맹자 후손들이 묻혀있는 집단묘역), '맹림'(孟林·맹자묘)을 일컫는다.

저자가 2300여년전 과거의 중국 사상이 고향으로 인문기행을 떠난 까닭은 '사상가의 진면목을 알려면 텍스트 이해



와 함께 현장답사가 필수'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텍스트 위주로 사상가를 이해해 왔지만 그가 지녔던 길을 되짚으면 텍스트의 그

물에서 자유로워진 사상가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저자는 맹자 관련 유적지를 하나하나 돌아보며 맹자의 인생과 학문세계에 대해 들려준다. 맹모가 쑤우청 북쪽에 있는 마안산 자락의 묘지 근처→쑤우청 서쪽 교외→쑤우청 남쪽(옛날 맹모사와 자사서원이 있던 곳)으로 이사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장답사의 힘이다.

저자의 답사코스를 따라 가다 보면 '인간' 맹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진다. 그는 다른 사상가들이 부국강병과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말하던 춘추전국시대에 '백성을 위한 정치'를 외친 혁명가였다. 또한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한 사상가였고,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마음(心)을 철학 주제로 설정한 철학자이기도 했다.

맹자사상은 조선 건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삼봉 정도전은 썩은 고리를 개혁하는 대신 왕조를 바꾸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꿈꿨다. 그가 개혁에서 혁명으로 생각의 축(軸)을 옮긴 데에는 20대 초반에 접한 한 사상가의 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흠모한 사상가는 바로 '맹자'였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시



'맹모단기교자' 동상. 자사서원 근처로 이사한 후 본격적으로 글공부를 시작한 맹자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자 찢고있던 베를 자르는 맹자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했다. <에이치2 제공>

대에 우리가 '맹자'를 읽어야 하는 까닭은 뭘까?

저자는 "자살, 청년실업, 최장의 노동시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저녁시간, 분단국가~ 한국사회의 현실을 상징하는 말들이다. 이렇게 버거운 삶 속에서 변화의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나는 맹자를 자주 만나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다.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여 앞둔 이때,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꿈꾼 맹자의 사상은 돋보인다. <에이치2(h2)·1만8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미디어 법과 윤리= '신뢰 사회'를 위한 미디어 사용 지침서. 최근 유명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조차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쓴 글로 인해 많은 곤혹을 지르고 있다. 비단 인터넷만이 아니라 온갖 매체에서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침서는 없고, 단순한 캠페인만 난무할 뿐이다. 책은 표현의 자유를 시작으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정보 접근과 공개, 취재원 보호, 음란, 저작권 등 미디어의 법과 윤리를 다루고 있다. <인물과사상사·2만원>

▲자연해부도감=아마존 자연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과학과 역사, 도시를 넘나들며 감각적이고 따뜻한 작품세계로 영미권 독자들을 매료시킨 뉴욕 출신의 인기 아티스트, 줄리아 로스먼이 특유의 활기와 섬세함으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아냈다. 사계절을 담은 듯 책의 전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그림은 도시의 공원에서 만난 작은 호기심에서부터 거대한 지구, 우주의 별자리에 이르기까지 자연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흥미진진하게 담아내고 있다. <더숲·1만8000원>

▲프리즘=2011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중추원월'이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이상우의 첫 소설집. '프리즘'은 등단 이후 2015년까지 발표된 여덟 편의 작품들을 발표 순서대로 배열해 독자들이 소설세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짐작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끝없이 일렁이며 흘러가는 문장들은 동일하지 않은 시공간을 한데 겹쳐놓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새어나오는 빛과 울림을 고스란히 감각하게끔 만든다. <문학동네·1만2000원>



▲생명 설계도, 게놈=과학저술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매트 리들리가 소개하는 게놈의 자서전. 게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23개 각 영역마다 하나의 특징적 유전자를 선택해 과학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어떻게 이 유전자가 발견되었으며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해준다. 유능한 여행 가이드가 직접 현장을 안내해주는 것처럼 재치 있고 유려한 문체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인문학 과학책이다. <반디·1만8000원>

▲돌고래의 기억=관념적인 인상이 두드러지는 박희수의 첫 시집 '돌고래의 기억'에는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미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비극적 세계관이 짙게 깔려 있다. 대학 시절부터 시동인 모임 '시속(時速)'에서 탄탄한 기량을 다져온 시인은 최근에는 김승일, 박성준, 최정진, 황인찬 시인과 함께 '는' 동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젊은 시단에서 주목받고 있다. <창비·8000원>

음식과 정치의 공통점 ... 시간이 지나면 부패한다

음식이 정치다

송영애 지음

지난 2002년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서민과 동떨어진 귀족 이미지가 큰 약점이었다. '서민행보'를 시작한 그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김치찌개에 소주를 마시던 중 제대로 씻지 않아 흠이 묻어 있는 오이를 외작 씹어 먹었다. 한나라당 캠프에서는 그날 일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 대변인은 "진짜 서민들은 씻어서 먹는 오이를, 시장에서 씻지 않고 먹은 게 무슨 대단한 서민행



보인 양 선전을 하는데, 진짜 서민들은 오이를 씻어서 먹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비슷한 풍경으로 순댓국집의 이명박 대통령도 퍼오른다. '국민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 이명박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카피, '밤 치먹었으니까 경계는 꼭 살려라, 잉? 알겠나?'고 일갈하던 국밥집 할머니도.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서민 코스프레'를 할 때 가장 쉽게 이용하는 게 바로

음식이다.

음식 스토리텔링 분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송영애(전주대 식품산업연구소 연구교수)씨가 음식과 정치의 연관성을 재미있게 풀어낸 '음식이 정치다'를 펴냈다. 저자가 밝힌 정치와 음식의 공통점은 ▲지역색이 뚜렷하다 ▲연대가 필수적이다 ▲자극적이어서 살아남는다 ▲고유의 맛과 향기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한다 등 다섯 가지다.

책은 4부로 구성돼 있다. '음식의 정치'에서는 고급 이래로 계속된 단식 투쟁, 이른바 '식사정치'로 일컬어지는 정치인들의 밥상문화 등을 들여다 본다. '정

치의 음식'에서는 '영부인의 영부인에 의한 영부인을 위한' 이벤트로 전락해 버린 이명박 정부 시대의 한식 세계화 사업, 아이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 국풍 81을 계기로 전국적 이름을 얻게 된 중무김밥과 전주 비빔밥 이야기 등을 다룬다.

그밖에 '배반의 음식'과 '화합의 음식'에서는 정경유착의 표본인 사카린 밀수 사건, 문민정부 초기의 아이권으로 자리잡은 칼국수, 방북길에 오른 정주영 회장이 물고간 1000마리 소떼(100만인분 식량에 해당된다)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다양한 정치적 사건, 역사적 사실 등과 음식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 재미있게 읽힌다. 각종 사진 자료도 풍성하다. <채륜사·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책

▲우리 집 한 바퀴=유아와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림 동시집. 간결하고 유머러스한 동시와 다채롭고 따뜻한 색깔의 그림이 어우러져 동시를 처음 접하는 아이도 편안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다. 동시에 담긴 이야기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여 주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도록 돕는 그림이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창비·1만1000원>

▲나무 도장=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평화와 인권의 길을 찾는 권윤덕 작가가 그린 잊지 말아야 할 우리 현대사의 비극 제4·3사건. 그때 그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제4·3'의 슬픈 역사를 간결한 글과 한편의 영화 같은 그림으로 돌아보고, 그 상처를 어루만진다. <평화를 품은 책·1만6800원>

▲레오, 나의 유령 친구=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두 작가, 맥 바넷과 크리스티안 로빈슨의 신작. 출간되자마자 2015 뉴욕



타임스 TOP10 그림책, 보스턴글로브 최고의 책, 퍼블리셔스위클리 최고의 그림책으로 선정됐다. 캐릭터의 감정을 풍부하게 담아내는 로빈슨의 그림은 주인공 레오의 감정 선을 따라 섬세하게 흘러간다. <사계절·1만1000원>

▲꼬불꼬불나라의 언론이야기=1972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바탕으로 꾸렸다. 진실을 밝히려는 용감한 두 기자가 대통령의 비리를 밝혀낸 실화를 토대로 학생에게 진실과 용기라는 두 덕목을 생각하게 한다.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 언론이 답아야 할 것이 진실이고, 진실을 담을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풀빛미디어·1만2000원>

채널A 종합뉴스

가장 빨리, 매일 저녁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 김설혜 보도본부 기자